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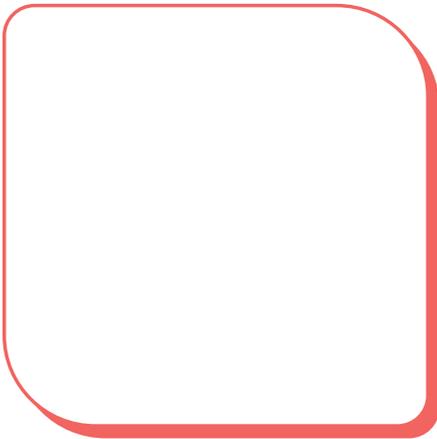
엘리자 그라벨 지음 | 권지현 옮김

미생물 팬클럽 독서활동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고, 작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체, 미생물! 『미생물 팬클럽』은 이 특별한 존재를 향한 다정하고 유쾌한 팬레터입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미생물은 더 이상 어려운 과학책 속 낯선 생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숨 쉬는 작고 소중한 이웃으로 다가옵니다.
— 김응빈(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교수, 유튜브 <응생물학>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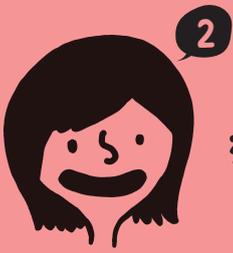
책을 읽기 전에, 표지에서 제일 눈이 가는 미생물을 하나 골라 보세요.
아래에 따라 그리고 이 미생물에 대해 자유롭게 추측해 보세요.



이 미생물 이름은 일 것이다.

이 미생물은 인간에게 (이로운 / 해로운) 것이다.

이 미생물이 하는 일은 일 것이다.



책을 읽으며 미생물의 이름과 특징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프로클로로코커스 •



• 물을 눈송이로 만들어요.

포토박테리움
레이오그나티 •



• 빵을 부풀려
폭신폭신히게 만들어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 •



• 어둠 속에서 반짝거려요.

슈도모나스
시링가에 •



• 지구온난화를 막아 줘요.



책을 다 읽고 난 후,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보세요.

1 미생물 관찰에 필요한 도구는 이에요.

2 프로클로로코커스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를 생산해요.

3 락토코커스 락티스와 락토바실러스는 우유를 로 만들어요.

4 미생물 이름을 지을 때 자주 사용되는 언어는 예요.



엘리즈 그라벨은 미생물의 열렬한 팬이어서 《미생물 팬클럽》을 썼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고 팬클럽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엘리즈 그라벨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책을 참고하면 좋아요!)

팬클럽 회원 모집

